

Oct
2018

www.kebhana.com

KEB Hana Market Monthly

- ▶ 연구위원 서정훈
02. 729. 0195 / seojh@hanafn.com
- ▶ 연구원 박정온
02. 729. 0190 / jungeunpark@hanafn.com



Oct
2018

목 차

금리 -----	03
달러/원 환율 -----	05
엔/원 환율 -----	07
유로/원 환율 -----	08
주요 국내경제 지표 -----	09
주요국 통화 대원화 환율 추이 -----	09



www.kebhana.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 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금 리

9월 동향 국내 경기 회복세 약화에 따라 1.9% 초반까지 하락하였으나, 연준의 금리인상과 대내적 정책당국자의 금리인상 언급 등의 영향으로 2.0%대 초반 회복

전월 금통위 이후 국내 금리 추가인상 기대 약화 속 경제부진 지속

- 9월 초반, 전월 금통위 이후 시장의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국고채 금리는 1.9%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양상 시현
 - 전월 금통위에서 7월에 이어 연속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개진되었음에도 연내 추가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부재하며 1.9%초반까지 하락하며 출발
 - 여기에 국내 2분기 GDP와 8월 소비자물가 등이 부진하게 나온 가운데 8월 고용지표가 7월보다 더 크게 떨어지며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도 국고채금리의 큰 폭 하락을 견인

9월 FOMC를 앞두고 추가 금리하락이 제한된 가운데 국무총리의 금리 인상 발언이 상승 전환 모멘텀으로 작용

- 9월 중반, 대내적 경제부진에 따른 금리 하락세가 9월 FOMC를 앞두고 제한된 가운데 국무총리의 금리정상화 발언이 상승 전환 모멘텀으로 작용
 - 9월 중반, 1.9% 초반까지 하락하던 국고채 금리는 미국 경제 호조에 따른 9월 연준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과 신흥국 불안 완화 등으로 하락 추세 제한
 - 이어 국무총리와 정책당국자의 금리인상 언급 속에 FOMC를 앞두고 글로벌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매도 등으로 상승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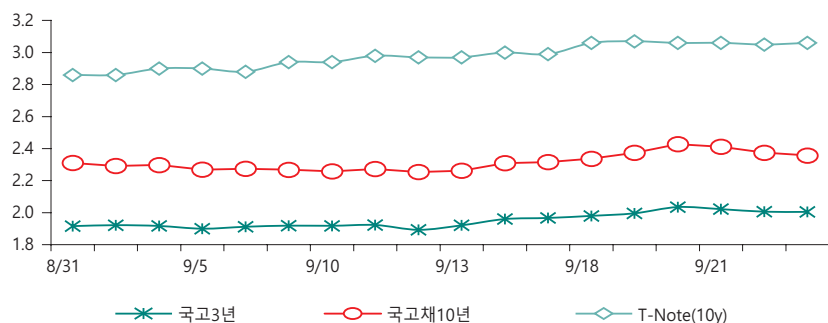
9월 FOMC 금리인상의 국고채금리 영향 제한 속 국내 경제와 이탈리아 재정불안 등이 금리 하락 전환 요인으로 작용

- 9월 후반, FOMC 금리인상 결정이 국고채 금리에 미미하게 작용한 가운데 정책당국자의 고용지표 부진 언급과 이탈리아 재정불안 요인 반영 등으로 소폭 하락 전환하며 마감
 - 9월 후반, FOMC 금리인상 결정 영향이 국고채금리에 미미하게 작용
 - 여기에 국내 9월 고용지표 부진 가능성을 언급한 기재부 장관 발언, 이탈리아 재정불안 요인 등이 안전자산 선호심리에 영향을 미치며 하락 전환 마감

9월 평균

국고채(3년): 1.95%
국고채(10년): 2.32%
T-Note(10년): 2.98%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KEB하나은행

10월 전망 양호한 미 경제 및 미-중 무역분쟁 전면전 확대 우려 제한에도 여전히 회복력이 미약한 국내 경제 상황과 이를 반영한 금통위 금리 동결 가능성 등으로 등락 범위 내 제한적 하락이 예상

평균	2018. 1Q	2018. 2Q	2018. 3Q	2018. 4Q ^F
국고채(3년, %)	2.24	2.21	1.95	2.10

- 미국 경제의 강건함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의 전면전 확대 우려 제한도 위험회피 완화에 영향을 미치며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9월 FOMC 금리인상 이후로도 미국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며 4분기 남은 추가 금리인상 여지를 높이는 점이 국고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여기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간 무역협상이 체결되면서 미-중간에도 전면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점도 위험회피심리 완화에 영향을 미치며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견조한 미국 경기에 따른 연내 4회 금리인상 가능성 속에 무역갈등의 지속에도 다소 완화 될 수 있는 점 등이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대내적 경제 여건이 투자, 고용부문에서 여전히 둔화 양상이 심화되며 한은의 수정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될 가능성 등이 금리 상승 추세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

- 국내경기가 수출, 물가 등에서는 양호한 흐름이나 투자와 고용부문에서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점이 금리의 상승 추세를 제한할 전망
- 특히, OECD에서 상기 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내 경제성장률을 2.7%로 하향한 가운데 10월 금통위에서 수정경제전망 또한 하향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도 금리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됨

여전히 약세인 국내 경제 회복력은 대외 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을 제한할 전망

- 10월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 기대가 다소 존재하고 있음에도, 상존한 대외 거시경제 및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금리동결 가능성이 우위를 점할 전망이 국고채 금리 상승 제한에 영향을 미칠 전망

- 10월 금통위에 대해 시장이 한-미 금리차 역전폭 확대, 가계부채 우려 등을 고려해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측면은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그러나 10월 금통위는 동결 가능성이 우위에 있을 것으로 판단. 여기에는 상존한 대외여건 및 국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고려에 따른 것으로, 금리인상 시기는 오히려 11월로 넘어가며 10월 금리상승세는 제한될 전망

10월 국고채(3년) 금리는 2.00%~2.20% 범위 예상

상승 요인	하락 요인
· 내 경제와 차별화되고 있는 미국경기 상황을 반영한 연내 4회 금리인상 가능성 · 금통위의 소수의견 연속 개진 영향	· 10월 금통위 금리 동결 가능성 · 한국 경제 회복 모멘텀 약화 지속 · OECD 및 국내 민간기관의 국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달러/원 환율

9월 동향 미-중 무역갈등 확산 속에 중반까지 상승 흐름이었으나, 후반 무역 분쟁 완화, FOMC 이후 금리인상 선반영에 따른 달러 강세 제한 속 대내적 수급 우위 영향 등으로 1,110원대까지 하락

9월 초,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우려 이어지는 가운데 미 경기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 반영

미국의 중국에 대한 2,670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 소식이 전해지며 1,130원까지 급등. 이후 미-캐나다 협상 진전과 위안화 강세 허용 소식 등이 상단 제한

미 금리인상 영향이 제한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완화와 대내적 달러 공급 우위 수급 영향으로 1,100원 초반까지 하락

8월 달러/원 평균환율 : 1,120.9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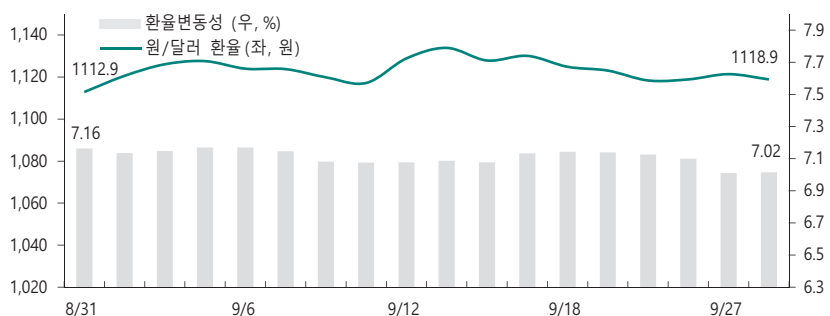
8월말 달러/원 환율 : 1,112.9원

- 9월 초,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경기는 호조가 이어진 반면, 국내경제는 2분기 성장률 둔화 등 경제동력 약화 등으로 상승 출발
 - 9월 초, 미-중 무역 긴장고조 이어지는 가운데 위험회피 심리 강화되며 상승 출발
 - 여기에 미국은 제조업지표 등 경기 호조세가 이어졌으나 국내는 2분기 성장률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며 한-미 경기차별화 영향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

- 9월 중반,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 가능성 소식 등으로 1,130원대까지 상승한 환율은 이어 미-캐나다간 무역협상 진전과 리커창 총리의 위안화 강세 허용 시사 등으로 1,120원 초반까지 하락 시현
 - 9월 중반, 미국의 對중국 추가관세(2,670억 달러) 부과 가능성이 전해지며 미-중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 속에 위험회피심리 극대화되며 1,130원대까지 상승
 - 그러나 이후, 미국과 캐나다간에 진행된 무역협상의 진전과 중국 리커창 총리의 위안화 강세 허용 시사 소식에 원화가 위안화에 영향을 받으며 1,120원초반까지 하락

- 9월 후반, 미-중 무역분쟁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연준의 9월 금리인상 단행에도 국내 수급 우위에 따른 달러 매도 확대되며 1,100원 초반까지 하락
 - 9월 후반, 미국의 중국에 대한 2,000억 달러 추가 관세 수위가 당초보다 낮아지며 무역분쟁 우려의 완화 속 추석 연휴 전 수출달러 물량 출회 등으로 1,120원 등락
 - 추석 이후, 연준 금리인상에도 향후 스탠스에 대해 시장이 비둘기적으로 반응한 가운데 수급상 달러공급 장세가 이어지며 환율은 전월보다 6.0원 하락한 1,118.9원으로 마감

달러/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



자료: 연합인포맥스, KEB하나은행

10월 전망 월초 환율조작국 이슈와 금통위 금리인상 기대 속에 원화 강세 예상되나 후반으로 가며 금통위 금리 동결 가능성 등으로 상승 전환하는 흐름을 보일 전망

평균	2018. 1Q	2018. 2Q	2018. 3Q	2018. 4Q ^F
달러/원 환율(원)	1,072.3	1,079.9	1,120.2	1,130

- 미-중 무역갈등이 10월 환율분쟁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따라 위안화 강세 흐름이 중반까지 환율 상승을 제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전망

- 최근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는 가운데 미 중간선거 전까지 무역분쟁 불씨는 간헐적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에 영향을 미칠
- 그러나 월 중반 이후 미국의 환율조작국 이슈 부각이 위안화 강세 및 외환당국의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며 1,120원 초반 수준에서 상승력을 제한할 전망

월초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환율조작국 이슈 부각 가능성이 환율 상승을 제한할 전망

- 전월 연준 금리인상이 달러 강세에 제한적이었으나, 여전히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부각 시점에서는 달러강세가 나타나며 레인지 범위 내 상단 터치를 시도할 전망

- 전월의 연준 금리인상 단행에도 통화정책 스탠스가 완화적이었다는 시장의 평가에 달러 강세가 제한되는 모습
- 그러나 미국의 2분기 GDP성장률이 연율 4.2%로 발표된 가운데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보임에 따라 이들 지표들의 강건성이 확인되는 시점에서는 달러 강세가 유효할 것으로 보여 환율은 예상 범위 상단 터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

연준의 9월 금리인상이 달러강세에 제한적이었음에도 미국경제의 견조함이 부각되는 시점에 달러강세는 유효할 전망

- 그러나 미국의 2분기 GDP성장률이 연율 4.2%로 발표된 가운데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보임에 따라 이들 지표들의 강건성이 확인되는 시점에서는 달러 강세가 유효할 것으로 보여 환율은 예상 범위 상단 터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

10월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110원~1,130원 전망

- 대내적으로 경제 활력이 약화된 가운데 미국과 금리차 확대 고려 등으로 10월 금리결정이 크게 이슈화하며 환율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형국
- 월 초반 금통위 및 환율조작국 이슈로 환율은 소폭 레인지 하단에 근접하다 중반 이후 이슈의 방향성 전환에 따라 소폭 상승으로 전환하며 상단에 근접하는 양상을 펼 전망 속에 1,110원~1,130원 범위 등락이 예상

상승 요인	하락 요인
· 금통위 금리 동결 · 미-중 무역갈등 지속 가능성 · 한-미 금리차 역전 폭(75bp) 확대	· 환율조작국 이슈에 따른 외환당국의 급등 경계감 강화 · 위안화 강세 흐름 전환 전망



엔/원 환율

9월 동향 월 초 무역분쟁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엔화 강세 시현. 월 중 후반 위험 선호 재개 및 아베의 3연임 확정 등 다수의 약세 요인과 원화 강세 영향으로 엔/원 환율 큰 폭 하락 마감

엔/원 환율 전월 대비 24.6원 하락한 976원에 마감

-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엔/원 상승 후 위험 선호 재개로 하락
 - 월 초, 미-중 추가 관세 부과 개시를 앞두고 경계감을 높임에 따라 엔/원 환율은 1,020원대로 상승
 - 양국의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력이 제한되면서 위험 선호 현상 재개, 엔/원 환율은 하락 전환
 - 월 후반, 아베의 3연임 확정과 BOJ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에 따른 엔화 약세에 한국 금리인상 가능성 제기 및 네고 물량 출회에 따른 원화 강세 요인이 더해지며 엔/원 환율은 970원대로 하락 마감

10월 전망 월 초에는 위험 선호 분위기가 이어지며 엔화의 추가 약세가 예상되나 월 중반 이후 엔화 약세에 대한 되돌림이 시현될 전망

달러/엔 환율 상승 후 하락 예상

- 달러/엔 환율 상승 여지 상존하나 월 중반 이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안전자산 선호 재개되며 하락 전환할 전망
 - 월 초 유로 약세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위험 선호가 엔화의 추가 약세를 견인할 전망
 - 그러나 월 중반 이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과 신흥국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달러/엔 환율 하락 전환이 예상됨

엔/원 환율 하락 후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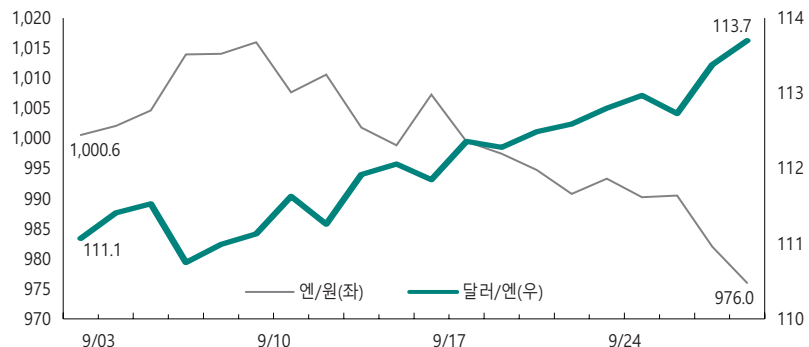
- 엔/원 환율은 월 후반으로 갈수록 글로벌 불안 요인에 주목하며 상승할 전망
 - 월 초 위험 선호와 환율조작국 지정 경계감, 10월 금통위(10/18)의 소수의견 가능성 등에 따른 원화 강세 영향으로 엔/원 환율 하락 전망
 - 그러나 월말로 갈수록 글로벌 무역분쟁 가능성, 브렉시트 협상 우려, 신흥국 금융불안 잔존 등에 주목하며 상승 전환할 것으로 예상

9월 달러/엔 평균환율 : 112.0엔

9월 엔/원 평균환율 : 999.6원

10월 엔/원 예상 범위 : 970원~1,000원

엔/원 및 달러/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유로/원 환율

9월 동향 이탈리아 재정 우려 완화 및 브렉시트 협상 진전 기대감이 유로화 강세 견인하였으나, 월 말 이탈리아 예산안 발표 후 큰 폭 절하 시현

- 원화 약세 속 이탈리아 재정 및 브렉시트 협상 기대감에 유로/원 상승했으나 월 후반 伊 예산안 우려 및 브렉시트 불확실성 확대에 상승폭 반납
 - 월 초, 미중 무역갈등 여파에 따른 원화 약세 영향과 이탈리아 재정 우려 완화 및 순조로운 브렉시트 협상 가능성으로 유로/원 환율 상승
 - 유로존 리스크 요인 완화 속 미중 무역갈등에 대한 예상 밖 안도감이 위험 선호를 자극하면서 유로화 저가 매수 확대, 유로/원 1,310원대 상승
 - 월 후반, 이탈리아 예산안 관련 우려와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유로/달러 1.16달러로 하락. 유로/원은 1,290원 초반으로 하락 마감

유로/원 환율 전월대비 2.4원 상승한 1,291.3원에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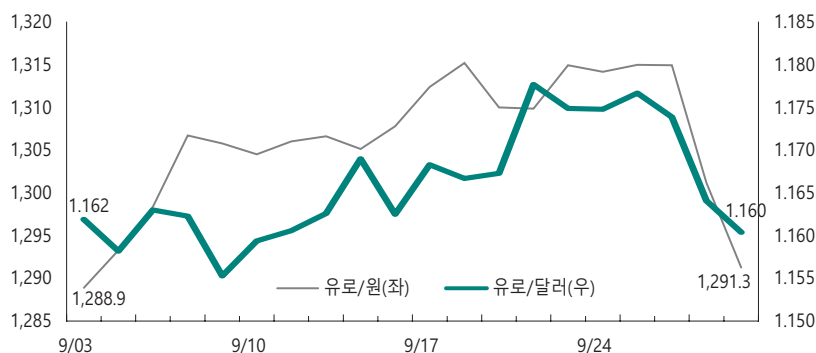
10월 전망 유로/달러 및 유로/원 환율은 이탈리아 재정 불안 및 브렉시트 불확실성으로 하락 예상

- EU 내 정치 불확실성이 전반적인 유로화 약세를 견인할 전망
 - 이탈리아 예산안의 EU집행위원회 제출(10/15)시까지 伊-EU간 마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EU정상회담(10/19) 전후로 영국과 EU 간의 브렉시트 협상 마찰 또한 유로/달러 환율 하락을 견인할 전망
 - 다만, 유로존 경기 개선세, ECB의 월간 채권 매입량 축소 및 연말 QE종료 전망, 유로화 저가 매수 등이 환율 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 유로/원 환율은 EU 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유로화 약세와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 및 금통위 경계감에 따른 원화 강세 영향으로 하락 전망
 - 이탈리아 재정 불안 및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 유로화 약세 요인이 유로/원 환율 하락을 견인할 전망.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 및 금통위 경계감도 환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미중 무역분쟁 격화시 원화 약세 강화에 따른 유로/원 환율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유로/달러 환율 하락 전망

유로/원 환율 하락 예상

유로/원 및 유로/달러 환율 추이



9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66달러

9월 유로/원 평균환율 : 1,306.1원

10월 유로/원 예상 범위 : 1,285원~1,325원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순환변동치, %

항 목	2017년	2018년				
	연간	1/4	2/4	7월	8월	9월
전 산업 생산	2.3	0.7 [0.3]	1.2 [0.8]	1.3 [0.6]	1.5 [0.5]	
제조업	1.6	-2.8 [-1.3]	0.5 [3.0]	0.9 [0.1]	2.0 [1.6]	
서비스업 생산	1.9	2.6 [1.0]	2.3 [0.2]	2.1 [0.1]	1.6 [0.1]	
소매판매액	1.9	5.0	4.7	5.7	6.0	
설비투자	14.1	9.4	-5.9	-10.1	-11.2	
건건설기성액	10.1	1.5	-3.4	-6.2	-6.2	
경기선행지수	-	-	-	99.8	99.4	
실업률 (%)	3.7	4.3	3.9	3.7	4.0	
소비자물가 상승률	-	-	-	1.5 [0.2]	1.4 [0.5]	
경상수지 (억달러)	-	-	-	87.58		
상품수지 (억달러)	-	-	-	114.28		
수출증감률(통관기준)	-	-	-	6.2	8.7	-8.2
수입증감률(통관기준)	-	-	-	16.2	9.4	-2.1
금리(국고채3년, 월평균)	-			2,096	2,018	1,949
KOSPI (월말)	-			2,295.3	2,322.9	2,343.1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증권거래소

주요국 통화 대원화 환율 추이

단위: 원

	2018.4	2018.5	2018.6	2018.7	2018.8	2018.9
미국 USD	1,068.2	1,077.8	1,114.6	1,118.7	1,112.9	1,109.3
일본 JPY(100)	978.1	991.6	1,007.0	997.6	1,003.3	976.0
유로 EUR	1,295.3	1,257.3	1,297.3	1,308.6	1,300.4	1,291.3
영국 GBP	1,473.9	1,436.7	1,472.7	1,461.1	1,445.4	1,446.8
중국 CNH	169.2	168.4	167.8	164.2	162.7	161.1

주 : CNH는 서울외환시장 월말 증가 기준, 그 외 통화의 대원화 환율은 뉴욕시장 월말 증가 기준
 자료 :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18.10월)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1 한 9월 무역수지(\$6,900.0M) -수출/수입(8.7%/9.2%, YoY) 독 9월 Markit 제조업PMI(F)(53.7) 유 9월 Markit 제조업PMI(F)(53.3) 미 9월 Markit 제조업PMI(F)(54.5) 9월 ISM 제조업지수(61.3) 8월 건설지출(0.1%, MoM) Fed's Bostic Speaks on Economic Development Fed's Rosengren Speaks on the U.S. Outlook and Monetary Policy	2 豪 RBA 호 RBA 기준금리(1.50%) 유 8월 유로존 PPI(0.4% MoM, 4.0% YoY) Fed's Quarles Testifies to Senate Banking Committee Fed's Chairman Powell Speaks at NABE Conference in Boston	3 개천절 독 9월 Markit 서비스/종합 PMI(F)(56.5/55.3) 유 9월 Markit 서비스/종합 PMI(F)(54.7/54.2) 미 9월 Markit 서비스/종합 PMI(F)(55.2/55.0) 9월 ISM 비제조업지수(68.5) Fed's Evans Speaks in London Fed's Barkin Speaks at Economic Conference in West Virginia Fed's Mester Speaks at Community Banking Conference	4 한 9월 외환보유고(\$401.13B) 미 8월 제조업수주(-0.8%)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Fed's Quarles Speaks at Community Banking Conference	5 한 9월 CPI(0.5% MoM/1.4% YoY) 호 8월 소매판매(0.0%, MoM) 독 8월 공장수주(-0.9%, MoM) 8월 PPI(F)(3.0%, YoY) 미 8월 무역수지(-\$50.1B) 9월 고용통계 -실업률(3.9%)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201K) -시간당평균임금(0.4%, MoM) 8월 소비자신용지수(\$684.0B)	6
7 중 9월 외환보유고(\$3,109.7B) 브라질 대선(1차)	8 중 9월 Caixin 서비스/종합 PMI(51.5/52)	9 한글날 일 8월 경상수지(₩2,009.7B)	10 일 8월 핵심가계수주(1.0%, MoM) 미 8월 도매재고(F) 9월 PPI/Core (-0.1%/-0.1%, MoM) (2.8%/2.3%, YoY) Fed's Bostic Speaks on Economic Outlook BOK 금융안정회의 9월 의사록	11 한 8월 경상수지(\$8,757.8M) 일 9월 PPI(3.0% YoY) 미 9월 CPI/Core(0.2%/0.1%, MoM) (2.7%/2.2%, YoY) 9월 재정수지(-\$214.1B)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2 중 9월 무역수지 -수출/수입(9.8%/20.0%, YoY) 독 9월 CPI(F) 유 8월 유로존 산업생산 [SA](-0.8%, MoM) 미 9월 수출/수입물가 (-0.1%/-0.6%, MoM)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P] Fed's Bostic Discusses Recruitment, Economics & Public Policy	13
14	15 일 8월 광공업생산(F) 미 9월 소매판매(0.1%, MoM) 10월 뉴욕주 제조업지수(19)	16 중 9월 CPI(F)(2.3/4.1%, YoY) 독 10월 ZEW 경기기대지수(-106) 유 10월 ZEW 경기기대지수(-72) 미 9월 광공업생산(0.4%, MoM)	17 유 9월 유로존 CPI (0.2% MoM, 2.0% YoY) FOMC 9월 의사록	18 韓 금동위 한 BOK 기준금리(1.5%) 일 9월 무역수지(-₩444.6B) -수출/수입(6.6%/15.4%, YoY) 미 10월 필라델피아연준 경기전망(22.9) 9월 경기선행지수(0.4%)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EU 정상회의(~19)	19 중 9월 광공업생산(6.1%, YoY) GDP 3Q(6.7%, YoY) 일 9월 CPI(1.3%, YoY) 미 9월 기존주택매매 (5,34M, 0.0% MoM) Fed's Kaplan Speaks in New York	20
21	22 미 9월 시카고연방 국가 활동 지수	23 한 9월 PPI(3.0%, YoY) 미 10월 리치몬드연방 제조업지수	24 독 10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PMI(P) 유 10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PMI(P) 미 10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PMI(P) 8월 FHFA 주택가격지수 9월 신규주택매매 연준 Beige Book	25 ECB 통화정책회의 한 GDP 3Q(P)(2.8%, YoY) 독 10월 IFO 기업환경지수 11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유 ECB 기준금리(0.00%) 미 9월 내구재 수주(P) -운송제외 -항공기제외비국방자 본재수주 9월 도매재고(P)	26 미 3Q 개인소비(A) 3Q GDP 연간화 QoQ(A)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F) 10월 컨자스시트 제조업활동 9/7 계속 미 9월 미결주택매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7
28 브라질 대선(결선)	29 미 10월 달러스연준 제조업지수	30 日 금정위(~19) 미 8월 S&P/CS 20도시 주택가격 10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31 중 10월 제조업/비제조업/종합 PMI 일 BQJ 기준금리(-0.10%) 9월 광공업생산(P) 미 9월 시카고PMI			

* 주 :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안은 이전치

KEB Hana Market Monthly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KEB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FAX 729-019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KEB하나은행 외환포탈 (www.kebhana.com → 외환포탈FXKEB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